

## 2차 포럼 설문지 서술식 응답 전체(포럼위원용)

### <2차 포럼 설문 문항>

문항 번호	문항 내용
1	<p>[입시원칙] 대학통합네트워크나 대학입학보장제 등의 대학서열해소 방안에서는 '선발에서 배정으로의 입시 패러다임 변화', 즉 '현재와 같이 성적 우수 학생을 선발하고자 하는 방향이 아니라,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면 동등하게 인정하고 배정한다'는 원칙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방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p>
2	<p>[선발방식1] 일정한 대학입학 자격 기준을 정하거나 새로운 대학입학 자격시험을 실시하여, 자격 기준을 통과하면 대학통합네트워크에 입학 자격을 부여하되, 입학 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가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p>
3	<p>[선발방식2]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춰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요건을 정하고, 요건을 충족하는 학생에게 입학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p>
4	<p>[선발방식3]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춰 학생부 교과성적/수능성적/학생부 교과와 수능 성적 합산으로 각각 성적이 높은 학생으로 정원의 2/3를 선발하고, 커트라인 근처의 1/3의 정원은 수능과 학생부 성적의 측정 오차를 감안, 커트라인을 기준으로 위아래 일정 범위 안의 학생을 동일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고 추첨하여 선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p>
5	<p>[배정방식] 합격 자격을 부여 받은 학생에 대해 발제2에서 설명한 지연승락 알고리즘 방식으로 학생을 배정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p> <p>1)매우 동의한다 2)동의한다 3)보통이다 4)동의 못한다 5)전혀 동의 못한다</p>
6	<p>[선발단위] 대학네트워크의 학생 선발을 '계열 구분 없이 전체 인원으로 하는 방안'과 '계열이나 학과 단위로 선발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 중 어느 방안에 더 동의하십니까?</p> <p>*계열 구분 없이 전체 인원으로 선발하는 방안: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대학의 총 정원으로 먼저 선발, 입학한 뒤 대학 진학 후 학업 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하도록 하는 방안. *계열이나 학과 단위 선발: 같은 계열이나 학과로 정원을 파악한 후 해당 정원에 대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p> <p>1)계열 구분 없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선발 2)대학네트워크의 계열이나 학과 단위 정원으로 선발</p>
7	<p>2차 포럼 주제인 '대학서열해소와 입시개혁'과 관련하여 위 설문에 담지 못한 말씀이나 의견이 있다면 남겨주세요.</p>

<1번 질문 세부 내용>선발에서 배정으로 패러다임 변화

\*동의 의견

1등주의'의 문제점이 골이 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교육은 누구나 받을수 있는 권리니까요.

대학에서 학문을 익힐 수 있을 만큼의 지적능력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으니까요.

대학통합 네트워크가 실현된다면 경쟁중심 입시체도가 개선될 것이다

무의미한 경쟁 완화

방향은 매우 동의하지만, 대학 선호도의 측면에서 지원자들의 반발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시원한 답은 없는 것 같아서 동의한다고 했습니다.

서열해소를 위한 기본이므로

서울 편중을 해소하고 지방 발전에 기틀을 이루게 되고 이로 인해 지방대의 경쟁력도 개선될 것이다.

선발의 의미는 이미 경쟁의 요소가 불가피하다고 본다.

우수한 인재가 아닌 생활 속 탁월한 인재 양성 필요

입시에서 점수화 또는 등급제를 탈피하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함

자격으로 입학하는 방법에 동의합니다. 배정이더라도 지정이 아닌 학생의 선택이 존중받는 방식이면 되겠죠

절대평가방식으로 일정기준만 통과하면

원하는대학에누구나갈수있어야한다.

줄세우는 치열한 입시폐지 공교육 정상화 사교육비경감

중고교 교육과정 정상화위해

학생들의 능력이 큰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현재와 같이 성적위주의 선발 경쟁보다는 일정한 자격과 능력이 되면 선발 배정것이 대학통합 네트워크로 사교육 감소와 대학서열 해소 방안의 첫 걸음이라 생각함  
성적이 우수한 주 이유가 학원성적이며, 대학서열화의 주범이 되고 있음. 고교성적이 대학의 학업수행능력에 큰 영향없음.

배우고싶은학생에게기회를주는것이옳은방향이라고생각되고,어느정도자격을갖춘사람이라면대학에서공부하는데문제가없을뿐만아니라더좋은성과를낼수있다고생각한다.

또경쟁이완화되면그만큼청소년들은입시공부외에다양한활동을통해더많은자신의가능성을발견할수있을것같다.

가장 먼저 인간은 인간에 대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거짓이고 신뢰할수 없습니다.

설사평가한다는것은차별로줄세우기에불과하고서열화를통해계급을만드는일에불과합니다.그렇기에일정수준이되면대학에서두각을나타낸학생을찾아내는것이더욱현실적입니다.

고교과정에서 이미 인지능력의 평가는 충분하다고 생각됨으로~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초중등학교까지 만연한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 의존도가 약해져서 학생들이 행복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교육과 기회배분

교육은 국민이 누려야 할 기본권이기 때문에 공부할 의사가 있으면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교육의 목적이 배움에 있고, 평가의 목적이 배운 것을 확인하는데 있다. 그러나 그동안의 최우선 목적은 실제로 선발이었다. 이를 되돌리기 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제공위해서

내신 과열 방지와 사교육 해소에 도움

대학 문턱을 낮추고 깊이있는 학업을 거쳐 졸업을 하는게 좋을 것 같다.

현재교육방식의높은성적만이훌륭한학생이라고볼수없다.암기식의지면시험만으로도가름하는것은한계가있다.

대학 선발 과정도 성적 순 능력검정 시험 또는 내신 점수 순으로 대학 입학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해당 학과에 맞는 경험을 쌓는 그런 교육과정이 고등학교에도 필요하고 그런 교과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은 가고 싶은사람이가야하기에

대학입학은 선발아닌 자격시험으로 대체되어야 하기때문임

목적에 맞춰진, 현 입시 현실을 고려한 바람직한 방안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선발 제도가 존재하는 한 서열이 사라지지 않음

선발 패러다임을 고수할 경우 교육이 본질을 잃고 무한 경쟁으로만 치달게 되기 때문이다. 대학도 선발이 방점을 찍고 있으니 입학 후 교육 및 연구 역량 강화라는 대학 교육의 본질에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선발은 수학 능력을 기준으로 해야하며,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절대적이어야함.

성적 우수 학생을 뽑는 것은 상대평가를 하게 하고 변별력을 넓혀고 함. 그렇다보면 불필요하게 수준 높은 문제가 출제 되어 사교육 열기를 불게 함.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받음. 일정 자격과 능력 갖춘 사람을 모두 대학에 수월하게 입학하게 하면 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임.

성적으로 아이들의 능력치를 한정하는 방식이 서열화를 가속화하고 다양한 능력을 몇개의 지식으로 한정하여 오히려 공정치 못함

성적이라는 것, 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지금 현재의 시험 형태

는 우수한 학생을 선별하지도, 우수한 능력을 기르지도 못하고 있다  
세세한 변별은 학습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별하기에 큰 의미가 없을 뿐더러 그것을  
통해 줄세우기를 하다보면 본인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아이들의 갖고있는 다양한능력이 다르니 일등만이 아닌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  
추면 동등하게 배정해야 아이들의 다양한능력이 더 발휘될수있다고 생각합니다.  
언제든 새로운 꿈을 가지고 배우고 실천해 나갈 때 필요한 능력을 수능시험능력으  
로만 국한 해서는 안된다

일단 향후 가야할 방향으로 본다면 매우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이유는 더 좋은 학  
생을 선발하기 위한 지금의 방식이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이로인해 발생하는 물  
질적, 정신적인 피해가 너무나 심각한 수준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학서열  
해소를 위한 현실적인 방안의 입장에서는 구지 대학입장보장제를 전제로 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아니, 어찌보면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합네트워크 세  
팅이 더욱 늦으질 수 있다고 봅니다. 대입제도의 개선이 대학서열의 문제에 걸림돌  
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안상진 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다음에는 출발, 과정의 평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공동 선발, 공동 학위  
방식이라면 당연히 선발에 있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학생에 대해 선발의 기회  
를 주는 것은 타당하다.

입시경쟁 탈피 공정성 평등성

자기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제 생각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이 원할경우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  
다. 여기서 능력이라는 말은 성적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서 능력이 있다 없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닌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  
는데, 이런 제 생각이 기술하고 있는 방향성과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일 민주적이고 공정한 방식이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려고 비용과 시간 투자를 과도하게 있는 듯하다고 느껴서  
지금처럼 수능이나 내신을 반영해서 선발을 하면 경쟁이 될수밖에 없다. 경쟁위주  
의 교육을 수십년간 해왔기에 병든 어른이 너무 많아 우리사회가 양극화 되는 것 같  
다. 또 초등학교때부터 영재학교, 과학고, 외고,자사고를 가기위해 끊임없이 선행학  
습을 해오고 있지만 자살률 1위를 못벗어나고 명문대간 학생들도 40%가 우울증을  
알고 있다고 한다. 초등학교부터 자기삶과 연관된 공부를 하고 호기심을 갖고탐구  
하는 공부를 할 수가 없다. 30년이상 교사를 했지만 경쟁이 남긴 상처를 보면 마음  
이 아프다.

직무능력중심의 인재선발 환경에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판단됨  
천문학적인 사교육비와 경쟁을 조금이라도 해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  
한 번의 시험으로 학생의 수학능력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다. 남한의 교육자체가

의사소통-대화하고 독자적 사고능력을 개발하는 교육과는 거리가 있기에.

현재 입시중심의 중등교육을 고려하지 않아도, 고등교육을 수학할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대학에 가서 하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3차 포럼에서 논의될 '고등교육의 질 제고'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정 자격과 능력을 갖춘 학생들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곳이 대  
학이어야 하고, 성장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고 있지 않다면 현재의 '학사경고'와 같은  
제도를 활용하여 낙제 또는 유급시키고 공부하기 원하는 다른 학생들을 위한 기회  
를 확보해야 합니다.

현재의 성적 우열을 통한 방식이 아닌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인정한 배정 방식은  
새로운 패러다임이란 생각이 들지만 일정한 자격과 능력을 판별하는 기준에 대해서  
는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준비가 필요할 듯 보인다.

#### \*보통 의견

고교졸업자격을 갖추었다면 그 자체로 대학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교육의 개념에 대한 동의가 전제되어야 하고 충분한 의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학교육이 더이상 수월성 교육이 아니라 100세 시대를 사는 현대인에게 보  
편교육으로 수용가능하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봄

#### \*비동의 의견

그럼 운으로 서울대 간다는건데  
또 다른 자격을 만들어 내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이 아닌 듯 합니다. 이렇  
게 주장하는 충분한 이유가 있으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려되는 점이 많습니다.  
선발의 철학을 조정하면 될 문제임 배분한다고 해서 입시문제가 해결되지 않음

<2번 질문 세부 내용>자격 기준(시험) 후 추천

#### \*동의 의견

이런 경우 입학해서 공부하는 과정이 엄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편으론 대입사교  
육이 학부 사교육으로 이월 되는 거 아닌지. 일단 들어가고 졸업위해 사교육이든

과외든 받는...지금 입시보단 이게 낫겠지만요. 무슨 개혁이든 노동시장이 차별을 없애고 수입에서도 차이가 없어야하며 위험한 산업환경 바뀌지 않으면 불행은 계속 될듯

추첨은 누구나 선호하는 대학이 있다면 해당될 수 있음.

아직은 많은 수의 고교 졸업자가 생의다음단계가 대입이라고 여기고 있으므로, 사회 요구가 변화되지 않는 한 일단 원하는 바 아무 대학으로 입학하고/ 아무대학이라 함은 통합대학의 의미로 서열 구분이 해체된 상태나 그와 같은 형태를 말함/ 지속 교육을 원하면 대학원으로, 중도 수료상태에서도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체제, 졸업과 수료가 구분될 수 있는 체제라면 더 좋겠다, 그래서 추첨제 방법으로 대학을 가도 좋겠다는 생각임

학생의 배경이 작용할 수 없는 방법이므로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초중등교육 파행 원인의 가장 큰 요인은 선발에 의한 과도한 경쟁임

일정 자격(고교 졸업자격 수준)을 갖춘 지원자 간에 추첨하는 것은 모두에게 평등한 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가장 공정

자격시험을 별도로 보기보다는 고등학교 학과 성적 반영의 비중을 높이면 불필요한 시험대비 비용과 에너지 소비를 줄일 수 있고, 별도 시험이 필요하다면 비중 줄이기. 성적 우선이 아닌 다양한 배경과 특색을 지닌 구성비로 선발한다면 (지역균형 선발과 취지를 같이하는 방식) 더욱 바람직 할 것이라 생각함.

수능시험에 중학교부터 아니 초등학교부터 준비를 하는 현실. 시험한번으로 아이들을 평가하고 등수로 아이를 평가하는 지금. 아이들이 원하는 학교에 갈수있는~하고픈공부를 맘껏 할수있는 교육이 되려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아닌, 사회와 대학의 입장에서 그 둘은 차이가 없기 때문에 자발적인 양보가 없는 이상 추첨이 가장 현명한 방식이라 생각합니다

한정된 자원에 대한 공정한 배분이라는 점에서...

기회균등

가장 공정한 방식이다.

대학입시가 지금처럼 변별력과 공정성을 위한다고 수만번 문제를 풀어서 기계처럼 2분에 한문제를 푼다고 한다. 그렇게 경쟁을 치열하게 해서 명문대를 나오면 우리사회가 정말 민주사회,평등한 사회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처음 도입시기에는 좀 혼란스럽고 비판이 있었지만 학생,학부모,교사가 촛불집회처럼 요구하고 전문가들께서 지혜를 모으면 가능할것 같다.

1번과 이유는 마찬가지로이고 다만 초과시 추첨보다는 대학 자원에 맡기는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일정 자격을 갖추었다면 누구나 동등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점에서 매우 동의합니다. 그리고, 추첨보다는 12~1월 중에 각 대학에서 3~4주 정도 수업과 과정중심평가를 하여 일정수준의 성취를 보인 학생들을 선발하는 방안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른 잣대로 하면 줄세우기가 되니까요.

대학이 수업과 학점관리를 제대로 한다는 전제하에 동의함

고3의 입시부담 완화로 인한 고교교육정상화 가능

그렇지 않으면 또 자격고사조차 더 잘 봐야 선발된다는 경쟁 논리가 작동하게 될것이기 때문

(초기 시스템 안정화 될 때까지) 초과할 경우 추첨 방식에 대한 신뢰 문제 제기될 수 있어

어떤기준을 세워도 공정성 논란을 가져온다. 정의로움을 새롭게 만들어가야한다.

일정한 자격기준을 두고 선발하는 것은 좋으나 정원 초과 시 추첨하여 선발하는 것은 정원의 의미가 없으므로 정원이 미달되거나 등록포기 학생이 있을 경우 커트라인 기준 상위순으로 입학 선발하는 방식이 좋다고 생각함

극심한 성적줄세우기를 완화할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 비슷한 자격요건을 갖추었다면 추첨제를 통해 선발, 극심한 경쟁을 완화 시킬수 있는 방법으로 보인다

동의를 하지만 현실적으로 결국 추첨으로 불합격할 수 있다는 불안감때문에(예측불가능성) 대학통합네트워크를 선택하지 않는학생이 많을 것 같아 우려된다.

교육의 질을 고르게 만드는 것과 그 후의 추첨이라는 전제가 필요.

추첨 방식도 좋지만 입학 자격을 부여 하는데 있어 다른 방법도 있을거 같습니다

선발방식은순위제도편찬을거라는생각을하였습니다

여러 면과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공교육 강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 실천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일단 대학통합네트워크에 한국의 주요대학들이 폴로 들어와야 한다는 전제가 실현되어야 하고, 입학 정원 초과 시 추첨 선발하면 대학 입시의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본다.

수요가 많으면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대신 추첨방법이 적절해야 한다.

추첨은 대학이 서열화 되지않고 특성화 되는 외국 사례에서 볼 수 있는 사례인데..

우리나라에서 정착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해결할 문제는 있어보이나, 대학입학에서 특례가 아니라, 졸업자격에 비중을 둘때는 추첨도 문제가 되지않고 최소한의 입학자격이나, 입학자격 조차도 없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대학은 꿈을 이루어 나가는데 필요한 곳이 되어야 하고 인생에 있어 수능이 차지하는 비율은 적다

자격기준을 통과하면 입학자격을 부여하는 것에는 찬성입니다. 다만 추첨을 어떻게

하느냐, 추첨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할지, 추첨은 몇번이나 할 지 등 지원자가 만족할 만한 수준의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 같아 그 부분에 대해 더 자세한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 \*보통 의견

잘 모르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추첨에서 떨어진 경우에 대해 어떤 대책이 있느냐에 따라 답이 갈린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추첨에서 떨어져서 재수를 하거나 대학입학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대단히 불합리하겠죠. 반대로, 같은 네트워크 내의 다른 대학을 갈 수 있다고 하면 Okay입니다.

자격기준을 통과하면 입학은 보장해주는 쪽이 낫다고 생각한다. 추첨에 대한 국민적 반발이 클 것이다. 특정 인기학과(예, 의대, 약대)에 대한 자격기준 설정이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지원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가 미지수임

자격시험을 치르기위한 또 다른 사교육시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교과과정을 이수한다면

원하는 대학에 모두 입학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입학정원이초과할경우추첨선발하는방식은

조금더논의후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없을 경우 고려했으면 한다.

새로운 자격시험은 입시로 변질된다

자격기준과 자격시험이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학부모교사학생의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운에 의해서 대학에 배정된다는 것이 좀 안타깝다.

실력이 아닌 운으로 추첨에서 떨어질 경우 학생과 부모가 겪을 고통을 고려해서

추첨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함

전원 입학자격을 주되 1학년을 거치며

수학능력과적성이라는기준에서2학년진학때

탈락시키는방식이바람직하다.

1번 문항에서와 같이 자격 기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할 수 있고 추첨 방식은 문제가 발생 할 여지가 너무 많다고 보여짐

추첨제 여부 보다는, 정원제한없는 학과 + 정원제한학과... 로 하고

정원제한학과에서는일부는성적순+일부는대기기간존중...으로했으면합니다.

#### \*비동의 의견

원하는 것을 학생 모두가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우선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자격입학시험보다는 기존의 대입제도를 고려하거나 개선하는 방법을 가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입학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원에 대해 신중성을 두어 최대한 입학을 보장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원의 1.5배수 뽑고 졸업은 1배수만

하지만절대평가

선발 평가에 대해 축소하고 대신 대학입학 정원을 없애도 좋습니다. 그대신 여러 과를 통합하고 온라인 방식 수업을 하는 방식으로 몰리는 현상을 해결할수 있습니다.

우리는새로운교육틀을만들시점입니다.

추첨은 공정성이 떨어지므로

정해진 자격 기준이 있다면 그 기준 안의 학생은 동등하게 교육의 기회를 주는게 좋을 것 같다. 자격시험에 통과하고도 추첨하여 떨어지는건 불공평하다.

추첨이라는 우연성에 동의하기가어려움

추첨의 신뢰성 문제가 반드시 대두됨

추첨제는 또다른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입학 자격을 갖춘다 할 때, 그 입학 자격이 무엇인가? 입학 자격이 아주 느슨해 동점자가 많아지고, 그럼 추첨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수험생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통합네트워크가 얼마나 많은 학생을 수용하느냐에 따라 저항감을 또 다를 것이다. 전체 수험생의 11% 정도 수용 가능한데 추첨제를 쓴다는 것은 국민적 수용이 어렵다고 본다.

<3번 질문 세부 내용>네트워크 정원에 맞춰 입학 허용

\*동의 의견

일정수준의 학생이라면 충분히 수학의 가능성이있다

대학수학능력 또한 중요하지요.

정원에 맞춰 성적요건을 정한다면 또 다른 경쟁이 생길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려되나 선발방식1보다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생각됨

대학에서 배울 수 있는 기본 능력이 있는 것만을 확인하고, 이후의 성장은 대학에서 이뤄가야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건 충족 뿐만이 아니라 그 요건에서 1가지를 못 채운 학생도 순위제를 두어 대기

자 방식을 대기순위 1,2,3으로 하여 그들도 끌어 앓는 방향도 괜찬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상대적 기준으로 경쟁이 과열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대학에서 과를 선택할 때 필요한 기본 능력과 개인의 목표등을 중요시하고 불필요한 시험은 줄여나가고 언제든 검색 가능한 자료들을 외우게 만들고 정답을 찾는 일에 사람을 길들이지 않도록 변해야 함

단 상대평가지가 아니라 절대평가지 선발을 기준으로 하면 좋겠다

입학에 대한 요건은 필요합니다.하지만 그 요건을어떻게 정할지는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성적이 입학자격의 핵심 요소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성적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으며 추첨 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전히 네트워크 외의 대학에 가려면 성적이 중요할텐데, 학교 내에 네트워크 대학 지원자와 비네트워크 대학 지원자 간에 학습 분위기가 크게 달라지는 것도 초기에는 조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방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한다. 내신 상위 10%, 수능 상위 10%와 같은 기준에 충족하면 합격시켜 주는 것이 좋다. 다만, 특정 대학에 몰릴 경우에는 유사 대학 또는 유사 학과에 배정해야 될 것 같다.

공교육 강화 측면

성적이 절대평가일 때 좋다고 본다

성적만 보지 말고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면 좋겠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대안이기에 때문입니다.

고교의 입시학원화 방지 및 교육정상화위해

많은 학생들에게 동등한 대학교육 수강 기회를 주는 것은 좋으나 입학 정원을 기준으로 입학자격 기준을 통과할 경우 선발하는 방식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고교 교육 정상화와 대학 입학생 선발을 위해 성적 요건은 필수적이다. 특히 의약학, 법, 교육 계열 학생들에게는 기본적인 성적 요건을 제시하는 것이 선발이나 앞으로의 학업 이수를 위해서도 현실적인 조건이다.

자격요건으로 하는것에 찬성합니다 위 1번 선정방법과 같은것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한건지...

대학 전공 커리큘럼을 따라 학업수행을 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시행을 빨리하려면 국공립 대학의 정원에 맞춰 추진해야할 것이라 생각함.

내가 잘 하는 것과 내가 좋아하는 것 사이에서 그 경계를 인지시켜 주는 것도 어찌 한 사회의 기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음치, 박치가 너무 심해 도저히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또다른 가능성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성 평등성

방향성은 그부분이 맞음. 대학이 인재를 길러내야지 사람 뽑는 기계가 되어서는 안 됨

운이 아닌 자격 조건에 부합하면서 자신의 실력으로 선정되기 때문에

해마다 네트워크 정원이 있을 것이고, 그 정원에 맞게 기준을 갖춘 학생을 선발하는 것이 옳다. 배정 방식에 있어 성적 기준으로 배정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되, 1차 정원 선발에는 성적 기준이 있어야 한다. 네트워크의 정원이라 함도 대학 정원이 아닌 계열별 정원으로 해야 한다.

\*보통 의견

일반인의 동의를 받기 쉽다

자격조건의 하나로 성적이 가장 간편한 접근이겠지만 점차 좀더 통합적이고 융합적인 인재양성의 조건이 확대되어야 할것같다.

성적 요건에 따른 또다른 레벨화 우려

성적요건충족에 대한 공정성 논란이 있을것이다.

선발방안만으로는 현 입시 체제에 맞는 실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네트워크의 요건이라는 것이 또다른 선발기제로 작동 될까하는 우려가 있어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에 맞춰 합격할 수 있는 성적 요건을 정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 불명확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 못하겠습니다. 위의 선발방식1과 비슷한 것 같지만 위에서는 "자격"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이번에는 성적요건이 사용되었는데, 성적요건은 최소한의 기준보다는 정원 수에 맞게, 예를 들면 정원수가 적을 경우에는 커트라인을 높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이 사용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학은 보장하고 졸업에 필요한 요건에 중점을 두었으면 좋겠다.

일정한 자격요건은 필요하다.

이는 대학통합네트워크의 정원이 일정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과도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성적 요건은 수학을 위한 최소한의 자격을 요구하는 것으로 그쳐야 합니다.

2번 3번 질문과 관련하여 입학 정원에 관해 개인적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현실적으로정원을무제한으로정하는것은어려울것같습니다.

다른방안이딱히떠오르지않으나,고등교육시스템을세분화하여뒷받침하는,입학제와대학

과정을 묶어서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고등학교 기본과정을 이수한 학생이라면

입학허가를 부여하고 추천제를 통해 정원을 조절하든지,

추첨하지 않고 지원학생모두를 입학시킬 경우

한국방송대 수업처럼 온라인 수업과 출석 수업(지역 근처에서 가능)으로 나누어 평가하는 방식으로 다양하게 논의되었으면 한다.

통상의 경우는 정원 제한이 없었으면 합니다

#### \*비동의 의견

또 다른 경쟁을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성적요건을 정하는 것 역시 차별을 만들어 가는 것 이라고 보입니다.

대학통합과 함께 학과통합을 하며 다양하게 스스로 융합 학습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좀 완화된 형태의 경쟁일 뿐, 성적에 매달리는 입시 경쟁은 여전히 지속될 수 있다고 본다.

성적이 아닌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성적이 상대평가라면 더욱이 그렇습니다.

입학정원제는 상대적 경쟁을 피할 수 없음

그 해에 입학 자격 시험에 합격해도 원하는 해에 언제든 입학할 수 있어야 함. 대학 중심이 아닌 학생 중심이 되어야 함

잘 모르지만 성적 위주로 경쟁을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성적보다 '적성'에 우선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에서.

현재의 입시와 큰 차이가 없을 듯 함.

지금과 다르지 않습니다.

<4번 질문 세부 내용>네트워크 정원에 맞추되 교과/수능/혼합 2/3, 1/3은 위아래 추천

#### \*동의 의견

현재의 커트라인 방식을 바꿀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 생각 되며, 학생 학부모 등 사회 전반적인 동의를 얻어 시행한다면 좋을 듯 함. 단, 추천에 대한 부분은 다소 부정적인 생각

선발방식중에 제일 합리적인 것 같아요.

수능도 저는 상대평가로 바뀌고 그 바뀐 평가방식으로 교과 성적 학생부 성적을 위

에 쓰신 거 처럼 정원에 1/3 2/3 이방식으로 하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성적으로 2/3을 선발하는 것은 지금의 상황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비율을 1/3 이하로 낮추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수학생과 기타 추천 학생 고려가

성적 말고 다른 분야의 검증이 있으면 좋겠다

시험과 추천이 절충되어 있습니다.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에게도 기회를 부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사람들의 동의를 얻기 쉬워서

1안보다는 현실적으로 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실제 대학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어느 정도의 선별은 필요할 수도 있다고 봄

1/3은 근소한 성적 차이가 있어도 그것이 합격의 당락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에.

변별에 대한 기준이나 사회적자본 등이 다름을 인정하는 방식이라 오차범위 추천은 좋은 방식이라 생각함.

일단 현실적으로 이것이 가장 빠르게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공정성 기회균등

가장 현실적인 안이라 생각한다. 계열별로 다시 서열이 생길 수 있다고 하지만, 단번에 서열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다. 1학년 교양 과정 후 2학년 때 학과를 선택하는 방식은 경쟁을 유예한 것으로 대학 1학년 과정의 성적지상주의가 다시 나타날 것이다. 계열별 인원을 사회적 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최대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완화하는 보완책을 사용해야 한다.

대학서열해소를 위한 대입제도의 혁신이 바로 잘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앞으로 추진해야 할 큰 변화에 발맞춰진 방안이며, 현 입시현실을 고려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보통 의견

대체로 동의하는 바 입니다만 1/3을 성적으로 선발하고 나머지 2/3정도를 추천하는 것은 어떨지. 패널 선생님도 이야기 했지만, 뭔가 시원하지는 않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는 의미있다고 보이지만, 성적기준 모집을 제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수학능력을 갖추었는가를 기준으로 선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 방법이 입시 경쟁을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지만, 과도기 방법으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의 고교교육의 기본 평가제와 다름이 없다, 고교 점수가 지능위주로 하지 말고 다양한 사회기여나 재능의 발표, 참여에 대한 종합평가가 되어준다면 좋겠다. 정원 기준으로 2/3를 교과, 수능 성적 합산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한다면 현재와 같이 사교육이 그대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비율을 바꿔서 성적이 높은 기준 1/3, 커트라인 기준 정원을 2/3로 선발하였으면 함

과도기적인 대안이 될 수는 있겠지만 경쟁 위주의 현 입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정원의 2/3라는 비율은 여전히 크고, 학생부와 수능에 대한 고부담은 여전히 높기 때문이다. 차라리 추첨의 범위를 2/3 범위로 더 높이는 것이 나을 수도 있겠다.

현재 학생들을 1등급 2등급 등급으로 줄세우고 경쟁하는 사회에서 좀 더 넓은 자격기준으로 통과 시키는 것은 도움이 될 것 같다.

현재의 입시에 적용하기 쉬운 방식이라 하시니 점차 보완해 가며 시행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이 기준에 들기 위한 사교육은 계속될 것이고 커트라인에서 약간 미달인 학생들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그런대로 공정하다.

#### \*비동의 의견

학생부와 수능을 둘 다 실패한 입시라고 본다. 이미 학생부도 내신 위주로 재편되어 있고 상대평가의 내신이 바뀌지 않는 한 무한경쟁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방안이라 생각한다.

일정수준 학력이라면 입학 가능한 자격시험 제도가 되어야 하며 내신성적이 아닌 대학별 특성에 따른 면접고사로 될 때 초·중등교육에서 과다경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지만 지금과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음

처음 시작할 때는 성적 줄세우기가 완화될 듯 하지만 2/3로 가기 위한 경쟁이 심화되어 현재 시스템과 비슷해 질 것 같다

대학통합 네트워크 자체가 입학보장을 해주어야 하는데, 경계지점에 있는 학생들까지 합격시켜 준다면 논란이 가중될 것 같다. 기준자격 이상의 학생에 대한 입학보장에 관심을 기울이면 좋겠다. 입학보장 해주는 게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힘들어할 것 같다

교과 성적, 수능 성적, 학생부 성적을 모두 합산한다는 것은 학생에게 다 짐을 지라는 부담을 줌. 현행의 평가 방식(상대평가, 불수능)이라면 세 가지 모두 고려할 게 아니라 차라리 학생에게 자신에 맞는 입시 방법을 선택하라고 해서, 한 가지에 몰두하게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다.

입시 분쟁의 가능성 높음

성적이 높은학생이 정원을 넘어도 2/3만 뽑는건가요...? 상대평가란점에서 지금의 입시와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결국 출세우기의 편법에 지나지 않음

1/3 묘수책 과열화 우려

선발이 복잡함. 교과성적 또는 자격고사 정도로 단일화하여 그 자격안에 드는 학생 모두를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선호함. 대신 현재 특성화고나 노동시장이 좀더 상향화 되고 복지가 좋아져야함

4분의 발제자 분중 가장 논리적이고 이해하기 쉬운 발표였습니다. 비록 내용 자체에는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 왜 그런 주장을 펼치시는지 정말 잘 와닿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재의 제도에서 과정의 공정성을 조금 더 확보하자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일 수는 있으나 이 논의에서는 조금 더 이상에 가까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가장 가까운 방법을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어 동의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선발 방법이 1, 2번 보다는 쉽지 않은 방법임. 현재 입시 방법과 비슷한 요소가 보임

대학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을 찾아가는 학문적과정이므로 성적순위대로 뽑는다면 대학서열폐지에 역행한다고 생각한다.

입학은누구에게나주어지고졸업과정에서정원을조절했으면한다.

중고등학교시기는나는누구인가?를찾아가며민주시민으로 육성과 저마다 특성과 소질을 찾아내는 교육과정으로 바뀌어야 한다.

이것은 배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선발이겠지요

현재의 살인적인 성적 부담, 입시 부담에서 학생들을 구해줘야 함. 이 방식은 지금의 사교육 위주 입시 준비 체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음

선발방식 1과 2보다 바람직한 방식이

아니기에.

추첨은 대입에 맞지않음

서열화

외부적으로 성적 우수자순으로 선발하는 인상을 주는 입시제도는 서열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생각 됨.

4번의 방식은 대학통합네트워크의 도입 취지를 벗어나 있다. 기존의 입시와 모양새만 달리할 뿐 그 속이 똑같은 격.

입시요건을 바꾸는게 중요한게 아니라 수업의 내용, 시험의 형태를 바꾸는게 중요하다. 지금 학교에서 하는 교육은 무용지물이다

이것은 사교육 해결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본다.  
대학을 수학할 수 있음의 기준에 대한 합격 불합격 선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성적으로 나눠선 안됩니다...

<5번 질문 세부 내용>지연승락 알고리즘으로 배정

\*동의 의견

대학의 선발 기준이 어떠한가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방법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개인의 눈치작전이나 운에 맡기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본다.  
나름대로 합리적인 시스템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1순위로 어디를 쓸지에 대해서 학생이 본인의 진로와 희망을 확실하게 정해야 될 것 같다.  
평준화라고 가정한다면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학생의 학과에 대한 만족감 상승.  
방식 자체는 좋은데, 대학이 어떤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할 것인가가 관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합의를 끌어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대학의 기준을 어느정도 존중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격을 가진 친구들이 추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의하나 선발 기준을 정함에 대한 사회적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 또한 성적의 변별만이 아님을 전제로하고 지역균형선발제 보장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중요한 것은 일정한 미리 정해진 기준이 무엇일까 하는 것이다. 정원 선발은 성적으로 뽑고, 배정은 선호에 따라 하는 것이 옳다. 문제는 선호로 1순위 배정 시 그 인원이 넘쳤을 때 무슨 기준으로 넘치는 인원을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입학 기준을 성적으로 했고, 공동학위제라면 배정은 성적 기반 없는 지역 근거리 배정으로 무작위 추첨이 좋겠다.  
입시제도를 반영한 현실적과 논리적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처음 들어보는 방식인데, 신선했습니다. 단, 어떤 기준으로 지연승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핵심  
지원자의 불만족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 같다.  
입학이 우선이라면 모든 학생을 수용하는 방법으로 실효성이 있다고 봄  
뉴욕공립고교 배정사례를 보듯이 96%의 학생이 1차에서 매칭이 되었고 여러 학교에 대해 동시 합격을 받는 학생이 없으므로 잠정수락 알고리즘 방식을 우리나라에 맞게 분석,보강한다면 시행해 볼만 한 시스템이라 생각함

추첨 방식이 처음엔 혼란이 크겠지만 대학간 교육 네트워크와 교육의 질적 향상, 통합대학의 졸업장이 수여되어 대학간의 서열이 의미가 없어진다면

추첨 방식도 나쁘지 않을것같다

현재로서는 최선의 방식이라고 생각되어서

동의하지만 추세를 따라가는, 어떤 학교에 대한 선호도가 없는 학생이 다수일 수도 있는 경우가 걱정입니다.

많은 학생들에게 다양한기회가 주워지는듯 합니다.

사람들의 반발 최소화

학생들이 적어낸 순위대로 배정가능하기에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실시되고 있고, 발표된 지 오래된 개념이라 그 공정성에 있어서 이미 검증된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기회균등 평등성 보장

불필요한 눈치 싸움을 지양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학생이 여러 차례 지원 기회를 가지는 것이므로 입시에 대한 불만과 불안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의견

잘 모르겠음

복잡한 입시제도는 설득이 힘듦

잠정적으로 선발할 시에 기준이 어떤 것이 되느냐에 따라 동의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제자분 말씀대로 알고리즘은 중립적이고 어떤 철학, 원칙을 가지고 기준을 정하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성적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똑같이 성적 순으로 되기 때문에 배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추첨 등의 방법에 대해서는 잠재적인 지원자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지 등 더 다양한 데이터를 갖고 분석 및 논의가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대학 이름이 없어져야야 한다.

사전 자료를 볼 때도 그랬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발표자께서 너무나도 확고한 입장 (지연승인 알고리즘)에는 다소 회의적인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 자체는 무결점 방식일지 몰라도 학생들의 생각을 100% 반영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선택에 대한 부분을 간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편의성때문에 알고리즘을 할것 같아서요.

대학은 자신의 인생을 완성해 나가는데 하나의 과정일뿐이다. 제도도 중요하지만 학벌로 차별하지 않고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가 되는게 먼저라고 생각한다

과거 점수 별 입학과 별차이가 없는듯

여전히 서열에 따라 지원하는 경향을 배제하기 어려움  
가장 좋은 방법은 학과 구분을 없애고 하면 최대한 평가라는 형식을 축소해야 합니다.

우리는 융합적 교육이 필요한데, 그동안은 평가 능력도 안 되는 누군가의 평가 기준으로 재단하는 일이지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 우리 교육의 문제라고 보여줍니다.

지연승락 알고리즘 방식은 대학 서열화 문제의 해결책이라기 보다는 대학의 서열화 문제가 해결된 것을 전제로 학생 배정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식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

이러한 알고리즘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학교와 학생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우선시되어야 한다. 교육에 신뢰의 네트워크가 만들어져야 한다.

지원자 입장에서 결과 발표까지 얼마나 오래 걸리느냐가 중요함. 소요 시간에 따라 동의 여부 결정 가능

1순위가 최대한 지켜졌으면 좋겠습니다. 2순위에서는 정원 초과 되더라도 입학은 받는다면 1순위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나요?

#### \*비동의 의견

대학의 특성에 맞게 면접 등 고유한 방법으로 선발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해야 함  
이미 배정 소식을 받았는데 자신보다 성적 높은 사람에 의해 밀려났다는 소식을 들으면 그 학생은 패배의식에 찌들어 살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봄.

더 촘촘히 어떠한 운이나 성적의 이득 or 손해없이 성적 알짜배기로 지정될 것 같습니다. 비슷한 수준에서 이런 알고리즘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으나 이미 수직서열화된 상태에선 반대입니다. 통합대학내 방식에서도 위험해보입니다.

대학 질 전체의 하향화 우려

대학이 선발 우선권이 주어져서 성적순서대로 탈락시킬 가능성이 높다.

대학의 입학 우선권은 학생이 선택권이 우선되었으면 한다.

학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

대학서열을 인정하는 배정 방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학의 문을 기본적으로 넓게 만들자

복잡하다. 복잡하면 그 틈새를 비집고 문제가 파생된다.

어려울 것 같음

<6번 질문 세부 내용> 계열 구분 없이 총정원 선발 vs 계열 • 학과 단위 선발

\*총 정원 의견

진로선택은 가능한 자신을 충분히 파악해서 최선의 선택 판단능력이 더 있는 대학 수준이 바람직함

대학내 전공 변경도 자유롭게 가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에도 언급했지만 졸업을 어렵게 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미래시대에는 융합, 통섭의 인재 필요하다고 판단하나 이를 넘어가기 위한 과도기의 혼란 다양한 눈높이에서 이해하는 과정 필요

학업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게 자신의 직업과 적성을 파악하는 데 유리하다고 생각함

지원자가 전공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으므로.

진로를 고민할 시간과 여유를 더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통, 즉 탐색 과정을 해보면서 전공을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

학과선택을 일찍부터 정하게 되면 실제 전공에 대한 오류도 큰 편이고 대학 진학 이후 교양과정등을 통해 다시 탐색하는 기회를 갖는 것이 과정상으로도 맞다고 본다. 또한 인기학과등의 경쟁을 입시에서 좀 유예 완화하는 효과도 있어서 더 낫다고 본다.

한동대처럼 계열 구분 없이 선발하여 2학년이 되었을 때 전공을 선택하는 방식이 우리나라 교육현실에 더 필요한 상황이다. 현행 고등학교에서 진로에 대해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전공 부적합으로 인해 졸업 후 취업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고등학교에서 충분한 진로가 결정되지 못한 학생들이 많은데 이런 학생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을 것 같다

현대 사회는 계열 구분이 점차 희미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학 수업을 듣거나 새로운 경험을 한 후에 선택을 하기 때문에 학생들이 좀더 생각을 하고 추가로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어서

4차산업혁명 시대는 융복합적인 사고와 지식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진학후 관련 학과, 교과목을 접하며, 차후 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며, 또한 이 선발 방식을 실시하고 있는 대학들이 이미 있어 실효를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고교교육 상태에선 소수의 학생만이 뚜렷한 목표가 있을거고 대다수의 인원이 갈 곳 없이 진학에만 몰두함으로,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학과 이탈자의 문제가 심할 것이라 생각됨

현재의 중고등 교육으로는 진로 탐색이 부족하고 성적에 맞춰 입학 후 계열을 고민하고 바꾸는 학생이 많다. 지금의 상황에선 계열없이 선발하여 학업 과정에서 학과를 선택하는 것이 인재 양성에 도움이 될 것 같다.

하지만중고등교육의과도한입시중심에서학생중심교육으로거듭나공교육에서충분한인성교육과진로탐색을할수있기를바란다.개개인의교육목표와계획을가지고원하는계열과학과를정한학생들이네트워크대학의해당과정을통해훌륭한인재로성장하는것이가장바람직할것같다.

1년동안 탐색기를 갖는 것이 필요한 사람도 있다고 생각되고, 1년뒤 학과선택시 발생할 경쟁이 우려되나 선발조건을 성적순위로만 뽑는게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싶음

학생부종합전형 세대가 아니라서 이해를 못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무리 들어도 '학생부종합전형'과 '면접' 등의 단어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공기관 채용이나 대학원 채용 등에서 부정적인 내용을 여러 차례 접했고, 피선발의 공정성이 담보된다기보다 선발자의 선호도가 반영되는 경우 상당히 불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조차 자식 독립적이지 않아 자신의 체면을 위시한 자식의 배경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마지막발제위원님의시점을비유하면,절벽끝에아이가서있는데아이만바라보고아이가놓인절벽을보지못하는모습같았습니다.낭떠러지에서누가노력을안합니까?1억6천짜리절벽이든2억짜리절벽이든부모는장면밖에있지만절벽은못본채그꼭대기에서발제간하는아이만보고논거를전개하시는것같아어느정도불편감이있었습니다.학생부종합전형이야기를하면서'이학교경영학과'에는 붙지 않았는데 '이 학교 경영학과' 에는 붙었다. 하는 발언을 하실 때 물론 예로 든 이야기지만 '경영학과'에 '붙는 얘기'가 왜 논점인지 잘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서원빈 학생과 하나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중에도 '전공 선택'을 좀 더 장기적 비전이나 안목에서 접근 할 수 없는지에 대해 의문점이 들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할 수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측으로 너무 할 것(해야할 공부)이 많아서인지 (시간부족), 아니면 목표지향적으로 성적에서 자유롭지 못해서인지 궁금했습니다. 7번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전공은 대학에서 정하는 것이 좋다. 지금은 성적에 맞추어 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

대학교를공부하는분위기로만들수있음

현재로서 중고교에서 진로발견에 대해 비교적 잘 안되고, 모르기 때문

공정성 평등성 보장

대학입학 후 1년 간 자신의 적성과 능력을 파악하는 진로탐색기간을 가짐으로써 학생의 전공적합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대답은 "계열 구분 없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선발"에 동의한다고 표시하였지만, 확실한 동의는 아니고, 현재 어느쪽에 동의하는지 결정하기에는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생각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만 계열이 아닌 총 정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선택한 이유는, 이 계열을 정하는 선택이, 학생들에게 너무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 경험에 비추어 보았을 때, 물론 제가 부족해서일 수도 있지만, 고등학교 때 자신의 미래를, 충분한 정보가 부족할 수 있고, 생각할 시간도 부족할 수 있는 상태에서 그런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리스크가 크고 실제로 잘못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결정을 했을 경우에 다시 길을 되돌아가기에는 계열별로 입학했을 경우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젊은 사람들에게 가혹한 일이지 않나 생각하여 총 정원으로 선발하는 것을 선택하였습니다.

과거와 달리 과를 중심으로 나누지 말고 가능하면 넓은 모집을 통해 여러가지를 함께 배울 기회를 만들고 융합적인 학습을 위해서도 계열구분을 하지 않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학과단위정원모집은 변수가 너무 많으므로

현재의 초중고 교육만으로는 본인에게 적합한 전공을 결정할 수 없음

단 한번의 시험성적만으로

선발의기준인 '적성과잠재력'을 파악할 수

없기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다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계열 학과별 의견

계열마다 필요로 하는 인재 수가 다르기 때문.

자신의 적성을 감안하자

개인의 재능과 성향

계열정도는 지원할 수 있어야 대학 공부가 더 필요한 학생이 지원함

대입에 이르면 자기의 방향을 정할 수 있게 되므로

성적기반의 선발요소가 포함된 경우, 성적 우수자 대부분이 의대를 염두에 두고 서울대(국립OO대학)에 지원한 경우를 생각해봅시다. 그럼 나중에 이들 중 다수가 의대 경쟁에서 탈락되고 다른 전공을 선택해야 하는 난감한 일이 벌어집니다.

고등학교때 어느 정도 자신이 하고 싶은 공부의 윤곽이 드러난다고 생각하기 때문 혼선을 피하기 위해 학과 단위는 아니더라도 계열별로 정해서 선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계열별 적성을 파악하게 할 수 있는 교육필요.

총 정원 선발과 입학 후 학과 선택은 경쟁을 유예하고, 1학년 교양과정의 왜곡을 가져올 것임.

계열 편중성 방지

계열 구분 없이 대학네트워크 총 정원으로 선발할 경우 경쟁의 유예라는 생각이 듭

니다. 계열이나 학과 단위로 입학한 후 정말 길이 맞지 않다 생각하면 전과를 하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분 없이 선발하면 경쟁을 유보하는 것 같다.

학생 선발에 있어서 계열과 학과 단위 정원으로 선발하는 것이 입학 후 불필요한 2차적인 계열(단위 과)선발의 혼란은 물론 효율적인 학교 운영(과별 교수수와 연간 운영계획 등)에 도움이 될것으로 생각함

현실적 교수 수급 문제

총정원으로 선발시,,이후 학과,계열로 선택시 어려움이 있을듯합니다.

이상적으로 보자면 전경원 쌤 말씀처럼 일단 계열구분없이 선발하고 1,2학년 때 기초지식을 습득한 이후 계열을 구분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다만 현실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습니다. 통합의 첫 단추를 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트워크에 참여하지 않는 타 대학과의 비교에서도 그렇고, 우선은 계열은 나눠 선발하는 것이 학생들에게 혼란을 최소화 시켜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입학 후 계열이나 학과 선택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특정학과 쓸림이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의 차이에 대해 아직 깊이 고민해보지 못했으나, 대학에서 적성을 명료화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생각은 듭.

계열구분 없이 선발할때 1학년부터 2학년 올라갈때 인기있는 과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자신이 원하는 계열에 못간학생들이 적응하는데 어려울것 같음(잘 모르겠음 또다시 고3을 1년 연장하는 시스템인거 같다

전공적성의 큰 틀은 고교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이미 고등학교에서 자신의 진로를 어느정도는 정하고 대학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시 또 대학에서 동일한 과정을 1~2년간 진행하는 건 큰 의미가 없을 듯 함.

이부분은초중고교육부터변화가필요하지않을까보여짐

하고 싶은 공부하러 가는 거잖아요.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항상 고민해서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과가기위해 과열과 부작용 발생

4번 응답과 유사한 이유

안상진 발제자가 계열 구분없이 전체 인원으로 학생 선발을 하는 것은 학생들의 계열 선택의 경쟁을 유예하는 것에 다름없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이다.

계열과 학과를 학생들이 선택해서 대학에 들어가야 대학에서 진로에 대한 고민보다 자신에게 맞는 공부에 집중할수 있다.

그래도 계열로 구분하여 동일성 학습을 주고 선택을 넓힐 수 있도록

<7번 질문 세부 내용>대학서열해소와 입시개혁 관련 의견

대학서열 해소 방안은 근본적으로 대학입시 개혁이 전제된 논제라고 생각되므로 분리되어 논하는것은 모순되며,

더 나아가 대학서열화의 근본원인중 하나는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라고 생각되며 결국 더 나은 인재가 대기업으로 집중되고 여기부터 대학서열화가 발생되고 입시경쟁이 치열해지며 도미노식으로 초중등교육의 파행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함

따라서 노동시장 임금격차 해소방안이 선행된다면 본과제를 논하는 데 용이하게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허황된 꿈같은 방법이다

임금 차이를 없애고 위험직종에 대한 안전대책을 제대로 세워야 젊은 세대가 살만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 만큼 공부했으니 나만 돈 많이 벌고 나만 잘 사는 게 평등하단 인식 없애지 않는 한

변화와 혁신으로 이어지는 과도기적인 준비체계 함께 가야  
교육의 민주화를 위해

모든 대학의 수업이 온라인화 되고

맛보기 강좌를 통해 본인이 선택하고 관심분야를 찾아갔으면 한다.

1,2학년은 교양수업과 기본교과 과정을 알아보는 과정을

3학년때 자기의 전공을 선택하고 정했으면 한다.

서열해소에 약간 기여할 것 같다.

대학의 학생 선발권을 약화시켜야 대학서열이 해소될 것 같습니다.

우연성에 근거한 추천방식은 대입에 타당하지 않다.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단순하고 명료한 방향이 있으면 좋겠다.

이 모든 입시안을, 실제 대학 입학처 관계자나 대학입시를 주관하는 교육부 주무부서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분들을 초대해보면 어떨까요?  
좋은 토론 마련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실현하려면, 여기에 참여하는 대학의 학생만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같은 강력한 개혁정책이 동반되어야 실현될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대학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수도권 사립대의 경우, 네트워크에 참여할 필요를 못느낄 것이다. 대학통합 네트워크를 도입하려면 입학보장이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대학서열화 해소, 대학무상교육 꼭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마지막 발표자 외에는 모두 구두로만 전달해서 핵심이 잘 전달이 안되고, 발표시간

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된다는 느낌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패널 발표에서 시각적 자료(PPT등)를 사용해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복잡한 제도가 필요할 것 같아 합의를 이루어 내기까지 정확하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 같다

통합네트워크 체제를 시행시 최소 30퍼센트 정도의 아이들이 성적과 크게 상관없이 하고싶은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경쟁하고 줄세우는 지금의교육에 균열을 낼 수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포럼위원께서 말씀하신 노동시장의 현실도 개선하는 것도 꼭 함께 풀어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오차 범위의 추첨제 또한 좋은 방안입니다. 지역균형도 중요하고요.

대학서열 해소 방안과 대학 입시제 개선은 함께 가야 할 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상진 선생님의 고민에 많은 부분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입시제도에 대해 너무 과한 개혁을 요구해 서열화 해소 자체의 논의가 축소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포럼이 잘 추진있고 관련된 분들의 수고와 동참에 감사할 따름이다.

서열해소는 능력에 따른 평등을 보장하는 방향이어야 하며 공평한 배분을 지향하는 것은 아님

말씀들 중에 대학통합네트워크를 구성한 후 일부 선호도가 낮은 대학에 대해(경쟁력이 떨어지는) 예산을 투입하여 교수의 인원을 늘리면 많은 부분 해소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지역 거점 국립대에 예산 투입을 하면 되는 문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대학이 서열화 되어 있는 구조는 주로 사립대들의 문제인데 서울대의 폐지만으로 과연 대학 서열화가 해소될 수가 있을지 혼란스러워집니다. 개개인의 의식이 바뀌어야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원점의 생각에서 맴돌게 됩니다. 입시제도부터 다르긴 하지만 외국(특히 프랑스와 독일)의 구체적인 사례가 궁금해지는군요. 유럽 주요국가에서 68혁명 이후 대학의 서열화가 폐지되었다고 들었는데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참고할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구체적인 데이터가 더 확보되길 바랍니다.

두차례의 포럼을 보면서 새삼 떠오르는 생각은 우리는 도대체 일생중 얼마간의 기간을 의무화된 교육에 묶여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초중고대학의 16년의 기간이 정말 누구에게나 꼭 거쳐야하는 기간일까, 이 정도의 교육을 받아야 남은 여생의 질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기본적인 질문이 떠올랐다

내생각엔이미고교교육에서충분히사회에훌륭한일원이될수있는교양은갖출수있다고본다, 고교 교육이 정상적으로 진행된다면 말이다,

고교교육에서지나치게입시전투화되면서맥락없는고도의교육,이해와기본을뛰어넘어교

묘한비틀기식의난이도로선발비율을맞추려는등급제식교육으로인문소양의기본보다지나치게고도화한불필요한교육으로시간을낭비하는것이현재의고교교육이라생각되어너무안타깝기그지없다,초등학교에서의자유로운창의적인교육이중고시절을거치면서대입을향한하나의목표로만돌진하는 세대가 안타깝다는 말이다,

고교에서충분히원하는다양한기본교육을상대평가가아닌절대치의평가로고교졸업의성적을위주로통합네트워킹된대학에2안의발제자가말한것처럼될때까지의매칭법으로대학을원하는사람들은서열없는대학으로들어가필요충족한보충교육을받아전문인이되고대학졸업의절대평가치의이수학점을거쳐졸업장을받고보다전문화된과정은대학원진학으로입문함으로써교육의정점을찍는체체가되는것,이런기본을제대로지켜나가면얼마나좋은까하는생각,

고교교육을마침으로사회에나아가사회인으로충분한자리매김을하고,이후에보다전문화된교육의절실함이느껴지면또언제라도대학입학매칭속에투입되어교육을받을수있는대학교육이라면정말좋겠다,대학이반드시젊은이들의영역이아니라나이를떠나서온국민이자신이원하고준비하고필요하다고느끼는때언제든지쉽게입학이되고졸업의단계에서일정수준의절대평가를패스함으로써졸업장을주는전문화된대학으로가면좋겠다는생각이들었다 물론이러한틀이돌아가려면대학이통합되고교육비가무료이고사회에서고졸대졸의급여서열화가사라져야할문제가있어야하겠지만,누군가가말했듯이포기하는방법이아니라그중뭔가하나부터시작해야마중물이되어전체가바뀌는시대를맞이할것이라는기대를가져볼수있지않을까한다,

학생들이 학업에 열정을 가지고 지적 호기심을 가지고 대학에 입학하는지 궁금합니다.

남들에게쳐지기싫어서가는대학,좋은직장과돈을위한수단의대학은훌륭한인간으로성장시키는교육의장이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

대학의문턱을낮춰원하는분야를배우고연구하도록기회를주는것이미래의인재들과이나라를위한방법일수있을것같습니다.어떤학업을어떻게배우고노력하여이수했는지그결과와과정이중요시여겨지는사회가되기를바랍니다.졸업장의대학이름이아닌각각의학업결과가 개인의 차이가 되고 분별력이 되어 인재로 인정 받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학 질관리가 우선되어야가능함

남들보다 더 노력한 사람에게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한다는 생각을 버렸으면 좋겠다. 남보다 열심히가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맞고, 그 부분에 대해 대학입학우선권?

으로보상해줄필요는없다고생각한다.

예전에 인기학과가 지금은 비인기학과, 예전에는 인기없던 직업이 지금은 인기

있는 직업, 10년 뒤에는 사라질 직업, 이런 이야기를 한 번쯤은 들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한 전공을 분명하게 선택하여야 한다는 점은 아닙니다. 평생 하나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노동 유연성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발제자분 발제하시는 중에 '연구중심대학'이라는 키워드(중립적)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듣고 있었는데 발제가 끝나고 다시 말씀하실 때 첫 번째 발제자분의 의견에 따르면 의대 약대 법대 등의 공부는 대학원 과정에 두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26세쯤에는 사회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이든 미필이든 '병역'이라는 숙제를 쥐고 30세 넘어서까지 공부를 하거나, 이십대 후반이나 서른전후로 나왔는데 출발선이 학자금(마이너스)이던 그 뒤의 삶은 포기입니다. 재산 있는 사람만 결혼하게 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에 연구인력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진짜 '업' 처럼 공부하는 것 같지만, 의전원가고 법전원가고 PEET치고 약사되더라도, 병아는 사람으로서 의사되고, 법아는 사람으로서 법조인되고, 약아는 사람으로서 약사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상업인(장사하는 사람)이 되어 나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교양 1년이후의 전공선택제는 경쟁을 1년 유예시키는 것과 같다는 마지막 발제자분 발언에 동의합니다.

전과도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고, 전공을 분리해서 공부를 3년 4년 더 끌어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법전원 없을 때 법조인 없고 의전원 없었을 때 의사 없었던 것도 아니었고 전문인력양성이었지만 그 업을 위한 인력도 그다지 없으며 대학원도 다 빔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시스템은 의로 뒷받침하며 묶어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대학통합네트워크 선에서 찬성하고 2차 논의에서 더 나아가 간 부분은 좀 더 확장하여 다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포럼을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저의 평소 의견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단 대학통합네트워크 안의 전제로 반드시 대학입학보장제를 병행해야 하는 것인지, 그 전제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상진 쌤의 우려가 맘에 지속 걸리고 또한 현실적인 지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대입제도 틀 안에서 큰 갈등없이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너무 완벽하게 제도를 구현하다보니 지난 20년동안 같은 논의가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수능 폐지 대학의 자율성

없습니다.

어려운 과제를 위해서 앞서서 고민해주시고 애써주시니 언젠가는 우리아이들이 북유럽처럼 학교생활이 전쟁터가 아닌 행복한 순장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저는 초등에 있어서 입시에 대해 잘 모릅니다.

정책에 있어 방식의 문제보다 예산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함. 일단 매년 사립대에 수조원의 국고보조금을 준다는 건 말이 안됨.

주체에 맞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 더 얘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위에 적은내용과유사한데,요약해서말하면,학생들이조금더실수/실패를하더라도용납될수있고좌절하지않고다시다른길을모색할수있도록제도적으로,사회분위기적으로준비되어야한다고생각합니다.이세상에내가해보지도않고이것이내적성과맞다,내가원하던것이다할수있는것이얼마나될까요.제짧은생각이지만뭔가정말해보기전에는그것이정말나에게맞다아니다를판단하기어렵다고생각합니다.그렇기에과선택,계열을선택하더라도그런결정을되돌릴수있는제도적인,사회적인분위기도함께구성되었으면좋겠습니다.

둘째는즉흥적으로생각이났는데지금논의되고있는대학입시에예체능관련된것도충분히포함되어있는지의문들이들어여쭙어보고싶습니다.예체능의경우에는보통중/고등학교의대부분의시간을투자해야하고이와관련된사교육시장이나,폐단이공부로인한입시만큼이나많다고생각합니다(음악,체육등).예체능으로대학을가는것도지금논의되고있는자격을기준으로입학을할수있도록하거나또는유사한안이있어야한다고생각하는데,지금논의내용중에예체능관련된것도고려하여논의되고있는건지궁금합니다.잘생각해보니공부와동일하게적용하는데무리는없지않나생각이들기도하는데어쨌든답변들을수있으면좋겠습니다.

고생많으십니다.감사합니다.

입시개혁은 대학통합과 연결될 수도 있지만, 대학이 통합되지 않더라도 한국 교육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이 부분은 계속 논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서열화를 없애는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단지 대학네트워크 밖에는 없다고 얘기 하는 건지요? 대학 네트워크, 대학 통합이 무엇인지도 아직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단순하게 설명하시는 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엇을 정하자는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청취가 필요해 보입니다.

포럼 시작시 영상으로 발표한 고등학생의 현재 교육환경에 대하여 발표자들의 공감 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 되며, 대학의 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학을 중심에 두고 초중고등학교 교육과 대학 이후의 직업관에 대한 총체적인 패러다임의 변화 없이는 현재의 문제를 당장에 해소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

결국은 분배에 대한 불평등때문에 생기는 거 아닌지요. 학력과 상관없이 임금격차가 별로 없다면 이런사태까지 오지않았겠죠. 앞으로는 평생교육으로 가는데, 그 의미도 실업교육시키는 쪽으로 가는게 아닌지요.평생직장은 이미 없고요. 그렇다면 교육도 달라져야 되겠죠. 학문과 실업으로요.희망이지만, 대개혁이 일어나야 한다고 봐요.

우선 사회가 능력을 중시하고 차별하지 않아야 대학도 변할 수 있다고 생각 함  
무엇이 되든 관철 안되는 구체적 이유와 정치제도권 법개정등 구체적 문제점과 대  
응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대학서열해소와 입시개혁을 위해서는 변화되는 시대에 맞는 교육 본질에 충실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과거 교육의 본질은 계급화와 경쟁을 강조했다면, 지금은 더욱 많  
은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  
이 시험점수로 결정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사회에서 벌어지는 의사들  
의 문제와 검사들의 문제에서 교육문제를 알게 합니다. 결국 교육은 우리 모두에게  
엘리트 중심이 아닌 모두가 가장 소질있는 공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것이 프랑스 68혁명에서 나온 교육 평준화에 대한 개념을 이어가는 것이라  
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새로운시대교육제도를만드는데는철저하게평가를배제하고모든이에게기회를주는  
교육이필요합니다.그리고,우리는엘리트중심교육이아닌협력이중심이되는민주시민교육  
이되어야합니다. 이것은 주권자로서 알아야할 모든 것을 가르키는 것이 필요합니  
다.

주권자인국민은모든권력의중심이기에더욱민주시민교육이필요합니다

입시제도개혁은 사회의 노동조건과 임금과 밀접하게 연관되어있다. 입시제도와 연  
동해노동개혁문제도 논의되어야 한다.

고교졸업자격을 갖추면, 통상의 경우에는, 정원제한 자체가 없이 대학교육을 받게  
했으면 합니다...

프랑스 Baccalaureat 처럼

시험을논문작성으로치루는방식으로

이행해가는방도도고민해야하지않을까?

답답합니다

반드시 대학서열 해소가 되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 특성에 맞는 자율적인 학교생  
활에서 공부하는 환경이 되었으면 합니다